

“과거의 업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12)

유리왕이 석씨 종족을 멸망시키다(상)

사위국의 바사니왕(波斯匿王)이 왕위를 이어받 고서 생각했다.

“먼저 가비라국의 석씨 여인과 혼인을 해야겠 다.”

그리고 왕은 석씨 집안에 청혼을 했다. 하지만 청혼을 받은 석씨 집안에서는 반대하는 이가 많았 으며, 한 편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마하남이 말했다.

“바사니왕의 사람답이 포악한지라, 청혼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때 마하남의 여자 하인의 자식 중에 얼굴 생김이 단정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석씨들이 의논하여 그 하인의 딸을 보내기로 했다.

“이 아이가 나의 딸이오, 성흔을 하십시오.”

마하남은 하인의 딸을 자기 딸이라며 왕에게 말 했다. 이에 왕이 기뻐하면서 이 여인을 첫째 부인 으로 삼았다.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 름은 유리다. 유리가 나이 여덟 살이 되자 바사니 왕은 아들 유리에게 말했다.

“가비라국에 가서 태자로서 배워야 할 무예를 배우도록 하라.”

왕은 유리를 여러 하인들과 함께 큰 코끼리에 태워 마하남의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5백 명의 동 자들을 모아 함께 공부하게 했다. 마침 그곳에 새 로 법당을 세웠는데 마치 하늘의 궁전과 같았다.

“우리들이 먼저 부처님과 스님들을 이 법당에 청하여 공양을 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되 리라.”

석씨들이 여러 가지 장엄물을 대달고, 향수를 땅에 뿌리고 향을 피웠다. 이때 유리 태자가 법당 으로 가더니 사자자리(獅子座)에 올랐다. 석씨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종의 자식이라 고함치며 문 밖으로 끌어내어 매를 때렸다. 유리 태자는 도반 인 범지를 보며 말했다.

“석씨 종족들이 나를 모욕했으니, 뒷날 내가 왕 위에 오르면 그대는 이 일을 나에게 말하리라.”

바사니왕이 죽고 유리 태자가 왕위를 이어받자 범지가 유리왕에게 예전의 일을 말했다. 유리왕은 병사를 모아 석씨 종족을 정벌하려 가비라국으로 갔다. 세존께서 아시고 길목의 마른나무 아래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계시는지라, 태자가 수레에서 내려 예배하고 물었다.

“이 나무 말고도 좋은 나무가 많은데, 어째서 여 기에 앉아 계시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친족의 그늘이 본래 외인(外人)의 집보다는 나 은 법이다.”

이때 유리왕이 말했다.

“오늘 세존께서는 일부러 친족들을 위해 말씀을 하시거나, 내가 정벌을 해서 안 되겠다.”

결에서 범지가 왕에게 집요하게 상소하니 왕이 할 수 없이 다시 군사를 일으켰다. 이때 목련이 부

처남께 말했다.

“유리왕이 석씨 종족을 치러 떠나려 합니다. 제 가 그의 군대를 모두 옮겨 다른 지방에 던져버리 든지 허공으로 뽑아내어 버리든지 하겠습니까. 아 니면 바다 속으로 옮겨 놓거나 철위산 사이로 옮겨 놓겠습니까. 그도 아니라면 백성들을 다른 지 방의 큰 나라 땅 안으로 옮겨 놓든지, 철룡(鐵龍) 으로 성을 아예 덮어 버리든지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신통이 있지만 결국엔 가비라국 사람 모두를 편안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 중생에 게는 일곱 가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늙음이며, 셋째는 병들으며,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악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눈 앞의 고(苦)를 잡

위국으로 돌아가자.”

이때 범지가 다시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석씨들은 계 율을 지키는지라 별레조차 해치지 않습니다. 하물 며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말로 전 진할 때입니다.”

왕이 범지의 말을 따르자 석씨들은 과연 퇴각하 여 성안으로 들어갔다. 유리왕은 말했다

“너희들은 빨리 성문을 열어라. 만약 그렇게 하 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모두를 죽일 것이다.”

성안에는 나이가 열다섯 살인 사마라는 동자가 있었다. 동자가 성벽에 올라가 혼자서 유리왕 병 사들과 싸웠는데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 당황한 유리왕의 병사들이 흩어지며 흙구덩이 안으로 숨 었다. 이때 석씨 종족들은 동자에게 말했다.



삽화 · 강병호

시 모면할 수는 있으나 끝내 완전히 면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 과거의 업을 뒤집을 수 있 겠느냐?”

그러나 목련은 끝내 뜻을 접지 못하고 5천의 대 중을 모아 발우 안에 모두 넣고 허공의 별 끝에 놓 았다. 석씨들도 병사를 모아 유리왕과 맞섰다. 석 씨들은 멀리서 유리왕을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은 활로 유리왕의 귀와 머리에 올린 상투를 꿰뚫었 다. 그리고 유리왕 군대의 병기와 깃발을 모두 다 깨뜨리면서도 끝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이에 유리왕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신하들에게 말 했다.

“너희들은 이 화살을 보고 있느냐?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더냐? 그들이 만약 나를 해치려는 마음 만 먹는다면 내가 반드시 죽고 말겠구나. 어서 사

“네가 우리 문중을 욕되게 하는구나. 누가 싸울 줄을 모르겠느냐? 우리 석씨들은 선행을 닦는 사 람이라, 별레조차 죽이지 않는다. 하물며 사람 생 명을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우리들은 한 사람 이 만 명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람 생명을 다치게 하면 내생에 지옥에 들고, 만 약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일찍 죽게 된 다. 너는 이제 빨리 떠나거라. 여기에 머무를 필 요가 없다.”

사마는 이내 가비라성을 떠났고, 유리왕 군사는 다시 성문 앞으로 다가가 외쳤다.

“어서 성문을 열어라.”

석씨들은 성문을 열었다.

동국대경전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⑫



자연이 주는 설법

육교 위에 핀 썩

시간이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은 늘 흘 러가고 있다. 새해인사를 나눈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며칠 전이었다. 저녁 시간에 전철에서 내려 육교 를 건너는데 육교 위에서 할머니 한 분이 바구니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팔고 있었다. 할머니와 바구니 에 눈이 가서 발길을 멈췄다. 그리고 웬지 그냥 지나 쳐 갈 수가 없었다. 무엇이 되었든 팔아드려야겠 다는 생각이 들어 바구니에 무엇이 들어있나 들여

다보았다. 썩이었다. 이 추운 날씨에 벌써 썩이라니 3월이긴 해도 아직은 추운데. 내가 느끼는 계절만 계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김없이 흘러가 고 있는 계절을 생각하니 사람처럼 게으른 게 없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것은 바구니의 썩이 할머니가 직접 캔 썩이라는 것이다. 무슨 사연인지 는 알 수 없지만 백발의 할머니는 손수 캔 썩을 찬 바람 부는 육교 위에서 팔고 있었다. 썩 한 봉지를 샀다.

“맛이 파세요.”

주위를 바라보는 것도 ‘신행’

들으려 할 때 들리는 ‘법문’

나의 작은 존재가 세상의 시작

집으로 오는 내내 웬지 육교 위에서 웅크리고 앉 아있던 백발의 할머니가 생각났다. 할머니에게서 산 쪽으로 국을 끓였다. 봄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봄이 이렇게도 오는구나 싶었다. 끓고 있는 국을 바 라보고 있자니 웬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고마운 생각도 들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구나. 이렇 게 편한 세상 살면서 나는 세상에 무엇으로 보답하 고 있는지... 나는 썩이 돋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 데 누군가는 그 썩을 캐다 팔고 있었다. 그리고 나 는 이렇게 국을 끓이고 있다.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계절이 성실하게 계절을 잇고, 생명이 성실하게 생 명을 잇듯이 나 역시도 좀 더, 아니 늘 성실하게 살 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가를 음력 2월 보름부터 우리 소림연화회관에서 자비도량 참법을 기도하며 큰 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을 들을 예정이다. 훌륭한 부처님의 법문을 선망 조부도 그리고 부모형제 일가친척 여러 영가 들도 법회에 모셔 함께 들으며, 새로워질 나를 발원 하여 맑아진 영혼으로 좋은 인연 이어서 주변의 도 반들도 부처님 품에 들게 하여 다 같이 행복해 지 기를 빌어본다. 법문을 들을은 잇고 있던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기도에 마음 바치는 일은 멀어진 깨달 음을 당기는 일일 것이다.

육교 위에서 만난 할머니의 썩을 보면서 가르침 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도 법당에만 있는 것도 아

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 는 모든 것들이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가 르침’이다. 감로수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다니 는 일도 신행이겠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그 들의 삶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일 또한 신행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부처님 법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신행이다. 올해 봄은 개나리 진달래가 아니라 육교 위에서 만난 할 머니의 썩으로부터 왔다.

물소리, 빗소리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계곡의 물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원래 물속에는 소리가 없다. 그런 데도 흐르는 곳에 따라 물은 소리를 낸다. 개울을 흐르는 물소리, 강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 작은 바 위를 지나는 물소리, 큰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소 리, 제각기 장소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

나는 가끔 물을 보는 습관이 있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볼 때면 누군가의 눈물 같기도 하고, 졸졸졸 흐르는 냇 물을 볼 때면 어린 시절 비 온 뒤 개울에 발을 담고 고 구수신으로 물을 떠서 장난치고 놀았던 기억이 나기도 한다.

언젠가 제주도 약천사 팔각정에서 가족들과 함 께 여름밤을 지낸 적이 있다. 캄캄한 밤중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다. 내리는 비도 내리는 곳에 따라 내는 소리가 달랐다. 소리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도 달랐다. 마당의 외동 위로 내리는 비, 담 밖에서 소리만 내며 내리는 비, 지붕 위에 내리 는 비 그리고 각각의 기슭 속에 내리는 비.

내린 비는 어딘가를 또 흘러갈 것이다. 개울을, 강물을, 작은 바위를, 큰 바위를. 그 날 나는 빗소리 를 들으며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듯 빗소리에 취해 밤이 가는 줄 몰랐다. 오랜 만에 차분히 빗소리를 들었다.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부처님 말씀도 물소리 빗소리 같다는 생각을 했 다. 들으려 하면 들릴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귀가 백 개라도 들을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을 했다.

나의시작

나는 작은 빗물 한 방울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가 나(我)라네 땅에 떨어졌으면 흙 속에 스며들어 흔적 없으려만 다행이도 산골짜기 작은 계곡에 흘러 나는 물이 되어 흐른다 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높은 언덕에서 폭포가 되어 떨어지기도 하며 흘러흘러 강이 되었네 작은 빗물 한 방울이 강의 시작이네 나의 작은 존재가 세상의 시작이었는데

부산 연꽃모임회장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업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로 보인 선문업송 21권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공공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공공한 33가지

031-534-3373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법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을 높이며, 힘 적게 들고 효과 빠르게,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圖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사랑하고, 엄밀하며 깨달아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공포스통 buddhapi5@daum.net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열히트펌프 냉 난방 기동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명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난방모드 겨울철 외기에 의해 차가워진 실내공기들 영속의 따뜻한 지열을 이용하여 난방

냉방모드 여름철 외기에 의해 더워진 실내공기들 땅속의 차가운 지열을 이용하여 냉방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